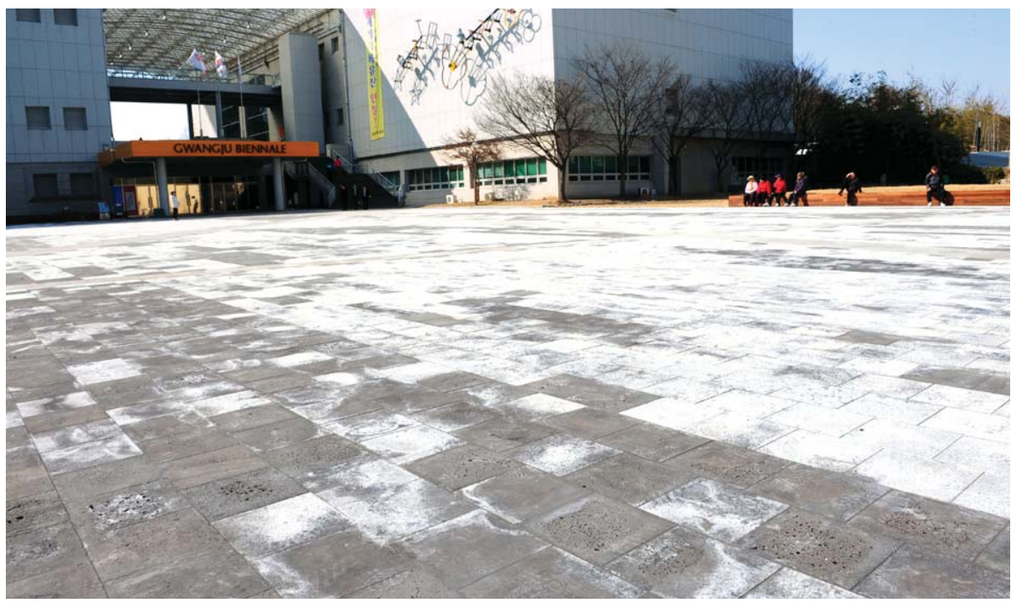


13일 광주시가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현무암 판석을 포장한 비엔날레 전시장 광장 바닥에서 백화현상이 발생해 미관을 해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광장 현무암 바닥재

시공 두달도 안돼 얼룩덜룩

"수억 예산낭비" 지적

광주시가 비엔날레 전시장 광장 바닥에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현무암 바닥재를 깔았으나 곳곳이 하얗게 변색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미관을 위해 비싼 제주산 현무암 석재를 시공했으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13일 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두달간 모두 5억 3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관 광장 정비공사를 벌여 전시관 앞 2783㎡ 면적의 광장을 제주도 현무암 바닥재로 포장했다.

광주시는 기존 광장이 투수콘크리트로 조성돼 매년 국제행사를 치르는 비엔날레 전시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현무암 판석과 잔디 블록으로 포장, 문화공간으로 조성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대규모 현무암 바닥재 설치는 광주지역에서는 최초로, 공사를 맡은 업체 역시 현무암 바닥재를 처음 시공했다.

하지만 포장 공사가 마무리 된 지 두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광장을 뒤덮고 있는 현무암 바닥재에서 백화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검은색 계통의 현무암 판석 위에 하얀 석회가루가 올라오면서 되레 비엔날레 전시관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셈이다.

현무암을 납품한 제주도 업체 관계자는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강한 현무암이 포장 공사를 위해 바닥에 깐 시멘트의 석회 성분을 수분과 함께 머금고 있다가 방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무암 바닥재 포장공사 시 바닥의 수분을 최대한 제거해야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공업체는 6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전시관 진·출입구 포장 등의 공사와 함께 추진하면서 시간이 촉박했고, 수차례 눈과 비가 내리면서 습기가 많은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당초 비엔날레 재단측에서 광장 공간을 잔디 광장으로 조성해 줄 것을 광주시에 건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굳이 시공 과정이 까다롭고 관리가 어려운 현무암 바닥재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겨울 공사가 완료된 뒤 바닥 청소를 마무리하지 않아 심하게 보인다"며 "앞으로 6개월 뒤에는 백화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검찰 "경찰 검사고소 사건 관할 이송 수사하라"

검·경 갈등 갈수록 격화

경찰 간부가 수사지휘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경찰청 본청에서 관할 경찰관서로 이송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경찰청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13일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범죄지 또는 피고소인 주거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이송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권을 둘러싸고 경찰과 힘겨루기를 벌이는 것으로 비치는 이 사건을 관할지로 이송해 수사할 것을 지휘함에 따라 경찰과의 갈등 양상이 한층 격렬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이 사건은 경남 밀양 소재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거지와 사건 발생지가 경남, 대구 등지이며 참고인들 또한 모두 밀양, 부산 등에 거주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관할권이 없다"고 지휘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청은 경남 밀양경찰서 정모(30) 경위가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수사과정에서 수사지휘를 한 창원지검 밀양지청 박모(38·현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과 모욕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고소장을 제출하자 이 사건을 본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해 고소인인 정 경위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정 경위는 업체 대표를 구속한 뒤 지역 언론사 기자와 공무원 연루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려 했지만 박 검사가 폭언과 함께 수사를 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5·18재단-광주교육청 '5·18교육네트워크' 개최

교사 연수·초등용 도서 개발 논의

5·18 교육 강화를 논의하는 '2012년 5·18교육네트워크'가 14일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시교육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린다. 이날 5·18교육네트워크에는 김준태 5·18기념재단 이사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정희곤 광주시 교육위원장 등 교육관련 단체장이 참여한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5·18교육네트워크에서는 5·18기념재단과 광주시교육청이 4월과 9월 진행하는 교사대상 5·18교육연수와 초등교육용 5·18도서 공동 개발 등 교육현장에서의 5·18 교육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과 5·18기념재단은 토요휴무제의 전면 시행에 따라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준비해왔다.

특히 올해 5월에는 1980년 5·18 당시 학생 신분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48명에 대해 관련 학교를 선정, 각 학교별로 추모식을 준비하고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이밖에 5·18수업사례공모, 5·18연구학교 운영 등 5·18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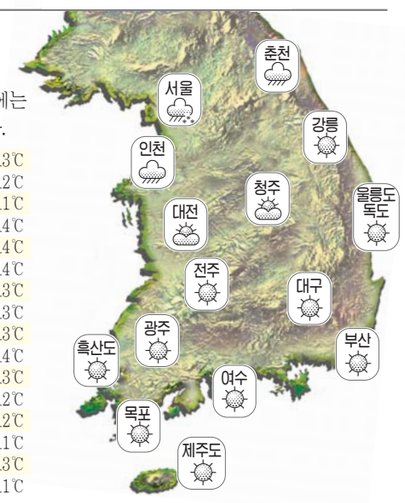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45분 해짐 18시 39분 달뜸 00시 23분 달짐 10시 36분

오후부터 포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에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광 주	맑음	0/13℃
목 포	맑음	1/12℃
여 수	맑음	1/11℃
나 주	맑음	-3/14℃
완 도	맑음	0/14℃
구 례	맑음	-3/14℃
강 진	맑음	-2/13℃
해 남	맑음	-4/13℃
장 흥	맑음	-4/13℃
순 천	맑음	0/14℃
영 광	맑음	-2/13℃
진 도	맑음	2/12℃
전 주	구름조금	-1/12℃
군 산	구름조금	-1/11℃
남 원	맑음	-4/13℃
흑산도	맑음	3/11℃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먼바다	남서~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m
먼바다	서~북서	0.5~1.0m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보통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먼바다	남서~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m
먼바다	서~북서	0.5~1.0m

	밀물	썰물
목포	06:32 18:29	11:33 23:45
여수	01:07 13:09	07:14 19:1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5(목)	16(금)	17(토)	18(일)	19(월)	20(화)
날 씨						
최저/최고	1/15	5/11	8/14	6/12	3/10	3/10

북구, 도심 폐가 14곳 주민 쉼터 조성

도심 속 애물단지로 전락한 공가(폐가)를 정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쉼터로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돼 눈길을 끈다.

광주 북구는 13일 지역 내 주택가 등에 방치된 공가(폐가) 14개소를 선정,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쉼터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가(폐가) 정비사업은 최근 주거문화가 아파트로 전환되면서 주택가 빈집이 늘고 흉물스러운 폐가로 전락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되고, 쓰레기 불법투기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북구는 지난달 일제조사를 한 뒤 334개소 공가(폐가) 소유자에게 공가정비사업 안내 등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있다.

이중 한시적으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부지 활용에 동의할 경우 임시주차장, 주민쉼터, 쌈지공원 등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